

# ‘인재중심·자율실행·미래주도’ 바탕,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

**현대모비스, CEO 타운홀 미팅**  
조성환 사장, 임직원들과 소통  
모빌리티 혁신 새 슬로건 공개  
채용 다변화로 인재 육성 지원  
UAM·로보틱스 등 신사업 강화



조성환 현대모비스 사장이 17일 요인 마복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 임직원들에게 주요 성과와 경영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조성환 현대모비스 사장이 2023년 새해를 맞아 ‘최고경영자(CEO) 타운홀 미팅’을 열고 임직원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조 사장은 또 지난해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올 한 해를 관통할 경영 방침과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회사의 미래 비전을 담은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공개, 미래 모빌리티 분야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겠다는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현대모비스는 17일 오전 용인마복기술연구소 스튜디오M에서 CEO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신규 직책자와 마복 연구소 신입사원부터 주점을 통해 선정된 인원까지 200여명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100여명의

신청자가 실시간 소통에 참여했고 사내 방송으로 전사에 생중계됐다.

조 사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주요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경영 상황, 주요 경영 방침 및 사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임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연결된 탁월함’을 담은 새 슬로건 ‘The one for all mobility’를 공개했다. 자동차 부품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선도 기업으로 빠르게

혁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체질 개선에 맞춰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와 이미지를 안팎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지난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뉴모비스(NEW MOBIS)’ 비전을 공개하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전문 기업 도약을 선언했다. 회사명 ‘MOBIS’의 의

미도 ‘MObility Beyond Integrated Solution’으로 재정의했다.

경영방침으로는 ‘인재 중심, 자율적 실행, 미래 주도’ 등 3대 키워드가 제시됐다. 조 사장은 “채용 전략 다변화와 합리적 시스템 운영으로 인재 육성 및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거점 오피스 등 하이브리드 근무환경 구축, 소통과 협업 강화 등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사업 운용의 주요 방향성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 경쟁력 확보’를 앞세웠다. 전동화와 차세대 모듈 등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는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략반도체 사업 역량 등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핵심부품 수주를 지난해 대비 10% 늘려 글로벌 제조사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UAM·로보틱스 등 신사업 개발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CEO와 구성원이 직접 소통하는 첫 오프라인 미팅으로 기획됐다. 임직원들에게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경영진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열린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미래 모빌리티 선도 기업 도약을 위해선 조직의 수평적 전개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현대모비스는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이같은 자리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네이버클라우드, 동남아 통신분야 DX 선도

**싱가포르 통신사 스타허브와 협력**  
클라우드 기반 5G 네트워크 서비스

네이버클라우드가 싱가포르 통신사 ‘스타허브’와 함께 동남아시아 클라우드 생태계 확장·통신업계 디지털 전환(DX)에 나선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스타허브와 전략적 파트너십과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MSP)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스타허브는 싱가포르 통신전문 기업으로 20년 이상 동남아 지역의 일반·기업 고객에게 △통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통신 기술을 결합해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개발하고, 동남아 지역 내 통신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MSP)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클라우드 기술력을 다방면의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등 동남아 지역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양사는 옛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허브의 ‘클라우드 인피니티 프로그램(Cloud Infinity Program)’의 일환으로 초저지연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인피니티 프로그램’은 스타허브가 개념화한 저지연 멀티클라우드 아키텍처로 확장성이 높고 액세스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스타허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같은 클라우드 전문 기업과 플랫폼 및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5G, 10Gbps와 같은 초저지연 멀티 액세스 기술을 통해 서비스 차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의 네이버 신사옥 ‘1784’ 내 프라이빗 5G 구축 경험과 기술력을 싱가포르 퍼블릭 5G에 접목한다. 클라우드 기반 통신 기술은 통신 회사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필수 기반 중 하나로, 통신사들은 클라우드를 활용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리소스 관리가 가능하다.

네이버클라우드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옛지 단 및 고객 데이터센터로 확장

해 고객들이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5G Core 솔루션과 다양한 워크로드(Workloads)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통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클라우드는 스타허브와 MSP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스타허브가 클라우드 MSP 사업자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스타허브 파트너사에게 기술 전문성 및 리소스를 지원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스타허브와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 GTM (Go-to-Market) 전략을 함께 추진하고, 통신 산업에 특화된 솔루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스타허브 니킴 이펜 CEO는 “네이버클라우드와의 협력으로 고객에게 무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타허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네이버클라우드 박원기 APAC 사업 개발 대표는 “동남아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 및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



SK C&C, ‘2023 씨앗’ 교육생 모집

SK(주) C&C는 17일 기업연합 채용연계형 청년 장애인 ICT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인 ‘2023 씨앗(SIAT)’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씨앗’은 SK(주) C&C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판교디지털훈련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청년장애인 ICT 전문가 육성·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SK(주) C&C 씨앗 6기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SK(주) C&C

## CJ올리브네트웍스, 근로자 안전확보 박차

고장 예측 ‘예지보전시스템’ 구축  
AI솔루션 통해 사고 발생률 감소

CJ올리브네트웍스가 ESG경영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나섰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글로벌 뷰티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오산 뷰티파크에 예지보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예지보전은 기계설비의 고장을 예측해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는 보전활동으로, 설비의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작업자가 직접 보전예방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 ESG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제조공장의 로봇, 제조 설비를 대상으로 상태 감시 및 예지보전을 위

해 딥러닝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AI솔루션을 적용했다.

이 솔루션에는 글로벌 베어링 제조사의 주파수와 축 회전수, 진동수 등의 빅데이터가 축적돼 있어 설비에 설치된 전류, 전압, 진동센서의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아도 설비의 결함을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설비의 센서 위치에 진단결과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결함 유형에 따른 분석과 조치내용을 제공해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송원철 CJ올리브네트웍스 DT사업2 담당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가 없어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설비의 상태 진단이 가능해 초기 구축 비용이 높지 않다”며 “설비 고장률이 현저히 감소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자의 시간을 부가가치가 더 높은 곳에 사용할 수 있어 생산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SKT ‘티딜’, 720개 품목 설맞이 특가대전

1++ 등급 한우·홍삼 등 다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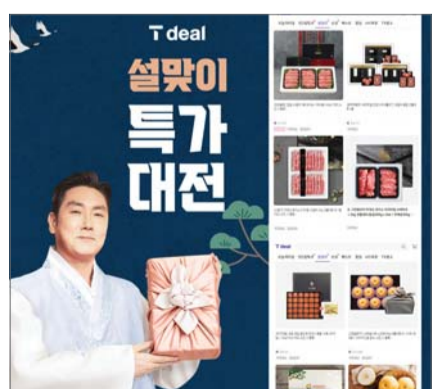
SK텔레콤이 AI(인공지능) 큐레이션 커머스 ‘티딜(T deal)’에서 한우와 홍삼, 과일 등 300여 개 브랜드 720개 품목이 참여하는 ‘설맞이 특가대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티딜’은 빅데이터 분석 및 AI 큐레이션에 기반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SKT 고객들만을

위한 문자 쇼핑 서비스로, 온라인 최저가 및 무료배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인 업체의 매출 비중이 96%에 달하고, 중소기업인들은 문자 발송 및 전용 온라인 페이지 등록 등 마케팅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주요한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SKT는 ‘설맞이 특가대전’ 이벤트에



서 1++ 등급 한우와 홍삼 및 과일·화장품 등이 이번 설에도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윤정 기자